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박진수 위원

◆ <PD수첩>

- '장관과 표창장' [10/1]

참으로 씁쓸한 1212회였다. 쉽게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사실이 전 국민이 갑론을박하는 쟁점으로 탈바꿈하였고, 공중과 TV의 대표 프로그램에서 한 시간 가까이 아까운 전파를 낭비하게끔 한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다. 사실 검증에 대한 <PD수첩>의 실력을 제대로 검증받았지만,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이슈를 <PD수첩>에서 또 다루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해진다. 시청률도 잘 나오고, 시청자들의 폭풍 찬사도 이어졌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팩트체크 난이도도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이슈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고 보고 싶다. 논란이 되는 쟁점을 취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별도의 전용 프로그램을 고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려보고 싶다.

◆ <뉴스투데이>, <뉴스데스크>[10/10]

같은 날,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를 실시간으로 시청하면서, 소개되는 기사들을 꼼꼼히 체크할 수 있었다. 보도기사들 하나하나가 필요하고 중차대한 이슈들로 꼼꼼하게 취재되었으며, 결코 지나치고 싶지 않았던 소식들을 알차게 확인할 수 있어서 시청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평상시 모바일을 통해 뉴스피드를 끊임없이 접하는 상황에서 뉴스 시청도 신문 구독처럼 유익함이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평판을 개선해 온 MBC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쳐 드리고 싶었다.

다만, 한 가지 매우 아쉬운 점은, 역시나 경제뉴스의 비중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공장 방문과 자율주행차 소식 2가지가 한 시간 남짓 동안 계속된 뉴스 시청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경제 뉴스였다. 계속해서 드리는 의견이지만, 정부의 자체 경제정책 평가가 맞는 건지, 아니면 언론과 연구기관에서 분석하는 평가가 맞는 건지, 같은 경제현상을 맞이하고도 왜 이렇게 정면으로 다른 분석을 하게 되는 건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고 본다. 서로 자기 얘기만 맞다고 주장만 하는 형국을 언론과 뉴스가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다. 이러다가 경제마저도 혐오

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게 사실이다.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못하는 개인과 국가에게 어떤 시련과 역사가 함께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경제뉴스의 비중에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이번 달에도 또 드리고 싶다.

◆ [의견 제안]

‘주52시간 근무가 바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의견으로 드렸던 경제이슈와도 관련이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일상 속 루틴을 바꾸며 소비지형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는 주52시간제 근무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인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대해 살펴보는 특집기획이나 기존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활용한 편성을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 다양한 연령대나 직업별 근무 환경의 변화를 얼마나 실감하고 있으며, 퇴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갈 전망 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유용한 과정이 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도 관심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다.

더욱이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조차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와 기업 활력 문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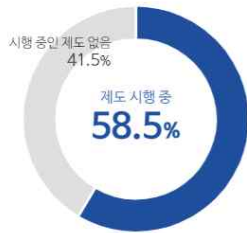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발간한 연구리ports를 함께 첨부한다(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1934 라이프스타일 조사: <https://www.20slab.org/archives/35061>). 지난 9월에 같은 의견을 드렸는데 직접 말씀을 드리지 못해, 간절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담았다.

II. 조사 결과 요약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기업은 회식·회의·휴식의 빈도와 시간이 감소한 비율이 비교적 높아 근무시간 관리 제도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음.

- 주 52시간제를 위해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시행중인 기업은 58.5%로 '출퇴근 시간 정보 수집(23.2%)'을 시행중인 곳이 가장 많음.
-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근무 환경에서 회식, 회의, 휴식의 시간과 보고 체계가 감소한 비율이 높아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

근무시간 관리를 위한 제도* 시행 여부
[Base: 전체, n=600, 단위: %]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제한되면서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근무시간 관리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음.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제도 Top3
[Base: 근무시간 관리 제도가 있는 기업 총사자, n=351, 복수, 단위: %]



1년 전 대비 근무 환경에서의 변화
[Base: 전체, n=600, 단위: %]



II.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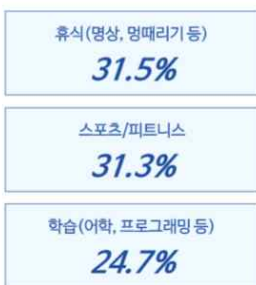
대기업 종사자는 1년 전 대비 여가 시간이 비교적 증가하여, 주 52시간제가 중소·중견 기업 까지 확대 시행되면 퇴근 후 삶(여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

- 대기업 종사자는 중소·중견기업 종사자에 비해 1년 전 대비 여가 시간이 증가함.
- 향후 시도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으로는 '휴식(31.5%)'과 '스포츠/피트니스(31.3%)'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주 52시간제로 1년 후 퇴근 후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이 41.5%, 사회 생산성에 대한 긍정 전망이 38.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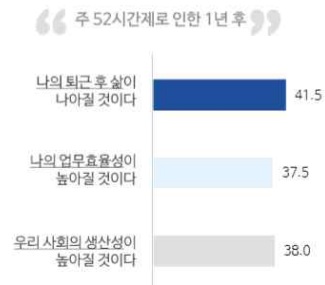
1년 전 대비 여가 시간에서의 변화
[Base: 전체, n=600, 단위: %]



향후 시도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Top3
[Base: 전체, n=600, 복수, 단위: %]



향후 주 52시간제로 인한 전망(Top2)
[Base: 전체, n=600, 단위: %]



III. 조사 결과 상세

3. 주 52시간제에 대한 전망 | 3) 주 52시간제로 인한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인식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하며, 특히 홈족에 대한 호감도가 높음

- 홈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이 62.3%로 가장 높으며, 비교적 여성(66.3%)과 30대(64.0%)의 응답 비율이 높음.
- 셀러던트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절반 가량으로 비교적 여성(59.3%)과 대기업(57.0%)의 응답 비율이 높음.
- N잡러에 대한 긍정 인식 비율은 45.5%이며, 부정 인식 비율에 있어서 여성이 26.0%로 가장 낮은 비율은 보임.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에 대한 인식

■ 긍정응답(Top2, 그렇다) □ 중도응답 □ 부정응답(Bottom2, 아니다) [Base: 전체, n=600, 단위: %, 점(5점척도)]

	전체 (600)		성별		세대별(안 나이 기준)		직장규모별			근속기간별			근무시간 관리 제도 유무	
			남성	여성	20대	30대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제도 있음	제도 없음	
(Base)	(600)		(300)	(300)	(194)	(406)	(100)	(500)	(258)	(169)	(173)	(351)	(249)	
홈족 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 (홈카페, 홈트레이닝 등)을 하는 사람들	평균 3.66 62.3	긍정	58.3	66.3	58.8	64.0	62.0	62.4	60.5	64.5	63.0	64.1	59.8	
		중도	28.0	25.3	29.4	25.4	27.0	26.6	28.3	24.3	26.6	24.2	30.1	
		부정	13.7	8.3	11.9	10.6	11.0	11.2	11.2	10.4	11.7	10.0		
셀러던트 퇴근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계발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	평균 3.41 50.5	긍정	41.7	59.3	49.0	51.2	57.0	49.2	47.7	54.4	50.9	53.3	46.6	
		중도	43.3	27.0	35.1	35.2	31.0	36.0	37.6	30.8	35.8	34.5	36.1	
		부정	15.0	13.7	16.0	13.5	12.0	14.8	14.7	14.8	13.3	12.3	17.3	
N잡러 두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유튜브 크리에이터, 배달업, SNS 1인 마켓 등)	평균 3.27 45.5	긍정	45.7	45.3	46.9	44.8	49.0	44.8	44.2	47.9	45.1	43.9	47.8	
		중도	37.3	28.7	34.0	32.5	32.0	33.2	35.3	31.4	31.2	34.2	31.3	
		부정	17.0	26.0	19.1	22.7	19.0	22.0	20.5	20.7	23.7	21.9	20.9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정 석 희 위원

◆ <신기루 식당>, <어쩌다 발견한 하루>

- 새로운 도전과 모험, 반갑다

파일럿 프로그램 <신기루 식당>. 단 하루만 열리는 신기루 같은 마법의 공간이란다. 식재료는 모두 인근에서 채취했고 상차림도 자연의 수확물로 꾸몄다. 강원도 인제 산속이라는데 마치 멀고 먼 다른 세상 같았다. 한식과 서양식을 합한 자연친화적인 요리에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져 감성을 자극했다. 결이 다르다고 할까? 그간 MBC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림이 아닌가. 난무하는 떡방, 쿡방에 질릴 대로 질린 시청자로서 새로운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 미술랭 스타 셰프와 전통주 소믈리에, 그리고 박준형, 정유미, 라비가 자연주의 팝업 식당을 함께 열었는데 출연진 구성이 아쉬웠다. 외국인 출연자들과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위한 섭외이지 싶지만 일단 박준형은 프로그램 정서와 맞지 않았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수선스러움이 <신기루 식당>에서는 방해 요소였다. 늘 그렇듯 구색 맞추기처럼 여성 출연자가 단 한 사람인 것도 아쉬웠다.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여고생 은단오(김혜윤 분)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사랑을 이뤄내는 본격 학원 로맨스 드라마로 웹툰 원작 '어쩌다 발견한 7월'이 기반이다. 배경이 만화 속 세상, 이종석의 <W>처럼 주인공들이 만화와 현실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만화, 그것도 순정만화다. 첫 회에 은단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당황하는 장면이 나온다. 은단오가 교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급식을 먹는 장면으로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양호실에 누워 있다거나, 만화 속 세상은 현실처럼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황에서 하나의 상황으로 훌쩍 넘어가지 않나. “우리가 있는 세계는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이야.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쉼도우라고 불리는 스테이지 밖에서는 자유로워. 지금 우리처럼.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던 우린 작가가 그린 대로 흘러가게 돼 있는 거고. 이를 운명이라고 하지”라고 역시 자아를 가진 캐릭터 '진미채'가 단오에게 설명해준다.

만화 안에서 메인 줄거리가 전개되고 있을 때 그 밖의 인물들은 쉼도우라는 스테이지에서 각자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다 메인으로 느닷없이 소환되는 것이다. 색다른 발상이다. 은단오는 사실 주인공들을 엮어주는 데에 필요한 인물, 뭘 전해준다거나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는다거나, 따라서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것. 은단오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화 작가가 정해놓은 콘티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김수정 위원

◆ 일본 방사능 오염 측정치 공개 놓고 '합리적 의심' 들어간 <뉴스데스크>

주한일본대사관이 9월 24일부터 '일본과 한국의 공간선량률'을 비교해 공개하면서 일본 방사능 수치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났다. 후쿠시마시는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고, 도쿄와 이와키시는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므로 한국이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뉴스데스크>는 주일대사관이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주일대사관의 의도와 발표 수치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데스크>가 이 사안을 단순 전달하지 않고 '점검'해서 수치의 정확성과 의도성을 문제제기하는 보도를 내보낸 것은 매우 적절했다.

'후쿠시마와 서울 별 차이 없다?...일 '황당' 홍보전', "콘크리트 덮인 곳만 측정"... 일 '교묘한' 왜곡'(9/26)보도를 보면 방사능 수치 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8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보도했던 [로드맨] '도쿄올림픽, 안전한가요?'에서 지적했던 내용이다. 주일대사관의 방사능 수치 공개 전략이 황당 혹은 교묘하다고 보도했는데, 어떻게 방사능 수치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던 로드맨의 과거화면을 조합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방사능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문제제기와 일본의 환경시민단체에서 조사한 최근의 방사능 수치를 비교해 보여주었다면 사안의 심각정도에 대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태풍 오는데 자루 아무데나?...일 오염도 줄줄이 유출'(10/17) 보도를 보고나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불안이 훨씬 커졌다. 방사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추가 보도를 요청 드린다.

◆ [탐사보도] ‘미성년 저자 논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뉴스데스크>

부모 인맥으로 학술논문이나 발표문의 저자가 되는 미성년 저자 실태에 대한 탐사보도를 보고 씩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구에 정당하게 참여하고 기여한 미성년의 활동이라면 교육차원에서 권장해야 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우리 사회는 제대로 검증할 수는 있을까?

대학은 교육부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실태에 대해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학계는 대학입시에 활용할 목적의 공저자 등재 문제가 터졌는데도 자체조사에서 선의로 해 주었다는 답변만으로 문제를 방조하고 묵인한 측면이 있다. 교신저자의 권한이면 영문 작성을 도운 고등학생 신분의 미성년자가 갑자기 논문의 주저자로 표시되어도 대학원생이나 동료 연구자가 제대로 문제제기 하지 않는 연구윤리의 낮부끄러운 수준이 드러났다.

미성년자 저자실태의 문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여러 유형의 하나일 뿐이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무감각하고 부모가 곧 스펙이라는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기회의 독점, 노동의 편중, 성별에 따른 격차 등 기득권을 ‘상속’하는 사회문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잘못으로 면박을 주고 부끄럽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잘못을 묵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오히려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가, 반복되거나 변형의 모습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하게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문제제기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일깨워주는 탐사보도가 이어지길 바란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전 경 란 위 원

◆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9/30~10/18)

MBC 라디오가 새 단장을 했다. 새로운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세부 코너들도 새롭게 정비했다. 그 중 아침 7시~9시대 FM 방송 프로그램으로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가 눈에 띈다. 케이블과 지상파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방송인이자 최근 가장 핫하다는 인기 유튜브의 출연자인 진행자의 인기에 힘입어 해당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인기 상승까지도 기대된다.

청취자와의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는 코너, 뉴스기사와 이슈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 청취자 퀴즈, 고민 해결, 초대 손님과의 토크 등등 새롭게 정비된 코너들도 다양하다. 특히 이전 진행자에 비해 발성도 좋고, 쾌활한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전화인터뷰로 초대된 게스트(10/3) 조차도 진행자의 언어문제를 우려할 정도로 가볍다 못해 함부로 내뱉는 멘트는 청취자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이미 어느 대중문화평론가가 '막말의 외주화'라는 표현으로 이 진행자를 출연시키고 있는 MBC를 비판한 것이 라디오 프로그램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 대한 우려는 방송언어의 문제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진행방식 때문에 커지기도 한다. 9월 30일 방송분의 경우 지하철 탑승 중인 청취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열차 안에서 큰 소리로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를 홍보해달라고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한 것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핸드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전화통화는 공공예절에 어긋나므로 자제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라디오 진행자가 나서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공공예절을 무시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 다음날 방송에서 그 청취자의 옆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괜찮다고 양해해주었다고 전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진행자의 이러한 행동이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이어졌다는 점이다. 10월 2일 방송분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울림이 있을 정도로 소리 질러달라고 요구하고, 10월 4일 방송분에서는 도로운전 중인 청취자와 대화를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미션을 또 다시 부여했다. 10월 10일 방송분에서도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청취자와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 비록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에서의 인터뷰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전화통화는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라디오에서 여러 청취자와 다양한 소통을 하려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러나 방송에서 지켜야 할 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면서까지 하는 행동은 자극적인 방송으로 청취자의 얄은 재미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마치 몇몇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선정적이고 돌발적인 행동까지 하는 메카니즘이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첫 방송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개선되어 이 프로그램이 보다 더 단단하게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오 수 원 위 원

◆ <PD수첩> 1214회, [10/15]

<PD수첩>(10/15) 'CJ와 가짜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다. 방송은 Mnet에서 방송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투표에 관한 조작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지만, 문화콘텐츠 시장의 독점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CJ의 독과점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런데 같은 방송계에 속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방송사도 이러한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MBC <PD수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고,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시청자투표로만 데뷔할 수 있는 연습생을 선발한다는 기준을 공공연히 공표해 놓고 미리 선정해 둔 연습생으로 데뷔 조를 만들기 위해 시청자투표를 조작한 이번 일은 시청자에 대한 기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이돌 가수를 꿈꾸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깊은 좌절과 사회에 대한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건이다.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나 과정의 공정이란 말이 구호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지도층 인사나 대기업 집단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CJ의 이런 행태야 말로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겠지만, <PD수첩>도 후속 보도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국 문화콘텐츠 제작, 유통분야에서의 CJ의 독과점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에 관한 문제점도 취재하여 보도해 주기 바란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이 상 길 위원

◆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28회)

MBC가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를 시작한지 7개월이 지나면서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마리텔>은 지상파에서 진행하는 인터넷 일인방송의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확실한 위상을 확립한 듯 보인다. 인터넷을 통한 일인방송의 내용은 젊은 세대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지만, 지상파에서 편성하여 방송하는 것이므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더욱 시청률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청자 의견을 개진코자 한다.

<마리텔>은 제한된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작은 파트로 구성되어 스토리가 전개되다 보니 각 파트들을 시청자들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큼 보여줄 시간이 부족하여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28회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아쉬움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김소희 셰프의 '댄디 키친'은 해외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명 한국인 셰프가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함께 비엔나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요리 프로그램과 다른 재미가 있었다. 그런데 처음 부분에서 김소희 셰프가 요리를 위한 재료를 쇼핑하는 동안 카메라 워크가 너무 흔들리게 촬영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프로그램의ダイナミック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한 효과로 보았으나 쇼핑이 끝나고 식당에서 요리를 시작할 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장면들의 흔들림이 <마리텔> 프로그램의 다른 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심해 지상파 정규 편성시간에 이를 시청하는 고령의 시청자들에게는 시각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김장훈의 '보이썬 코리아'는 거리에서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현지의 관중이나 TV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쉽게 몰입될 만큼 흥미진진하였다. 노래를 잘 부르는 기준보다는 시청자의 관심을 유발시킨 거리의 노래 경연대회라는 점에서 독특한 프로그램 구성이라 생각되어진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지 말고 당선된 후보자들을 발표할 때까지 연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프로그램 구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고 중도에 전반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다른 내용의 파트로 넘어가니 시청자들은 좀 의아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소희의 '댄디 키친'과 김장훈의 '보이썬 코리아'가 흥분된 분위기의 연출이었다면 김구라의 '포기하지마 포기김치'와 도티의 '밋지 않은 크리에이터 컨설팅'은 상대적으로

으로 연령이 높은 시청자들에게는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면서 시청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구라의 '포기하지마 포기김치'에서 초대한 김치 명인 유정임 씨의 김치 담그는 과정은 상당한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여기에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과 농구선수 하승진이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흥미를 더한 구성은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뜩이나 짧은 시간에 이들의 분량을 추가하다 보니 정작 프로그램의 중심이 되어야 할 김치 명인 유정임 씨의 분량이 충분치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도티의 '밋지 앓은 크리에이터 컨설팅'도 도티의 완숙한 화법의 진행과 컨설팅을 받고자 출연한 이지혜의 거친 입담의 진행이 서로 대비를 잘 이루어 전 연령층에 재미를 더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마리텔>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의 시청자들을 잘 아우르면서 제작되어 시청률이 제고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홍성재 위원

◆ 예능을 중심으로 방송전반에 대한 세대 간 소통에 관한 내용

- 'X세대와 Y세대가 소통하는 방식에 대하여'

10월 시청자 의견서에는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을 중심으로 방송전반에 대한 세대 간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을 내고자 한다. 최근 SBS <미운 우리 새끼>가 시청률 상승세를 보이며 일요 예능 1위, 주간 전체 예능 1위로 자리 잡았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세대 간의 소통 방식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시각, 자식의 시각, 선배의 시각, 후배의 시각 등 다양한 관점으로 삶을 비춰주면서 본래의 색을 잃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이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특히 X세대와 Y세대의 소통 방식의 차이에 대해 관심이 있다. Y세대는 1980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30대 중반 정도로 볼 수 있다. X세대는 이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마흔이 된 1980년대 이전 세대로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이에 두 세대가 보이는 큰 차이를 정리해본다.

내용	X세대	Y세대
보상	장기적 보상이 가능	즉각적 보상을 원함
자유 시간	단체 회식문화를 원함	개별 자유 시간을 선호
평가 및 결과	평가지표와 결과에 주목	공정한 프로세스에 주목
교육 기회	개별적으로 해결할 뉘으로 생각	조직 안팎에서 배우길 원함
조직에서의 정체성	좋은 조직에 속하는 것	조직에 의미 있는 사람
피드백	조직 구성원 앞에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현재 예능을 비롯한 많은 방송에서도 X세대와 Y세대가 주축으로 파트너를 이루어 방송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보다 중심이 되는 X세대가 원하는 보상, 평가, 피드백으로 전체 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 그러나 세대 간의 소통에 있어서 보다 주도권을 가진 X세대가 Y세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 또 이와 같은 노력은 Y세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어렵게 들어간 고연봉의 직장을 Y세대는 문자 한통으로 퇴사를 통보한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X세대는 큰

성 없고 예의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많은 방송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대 간의 다른 소통 방식으로 갈등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 MBC 예능에서는 이와 같은 다른 세대의 소통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서로 다름을 이해해가면 좋겠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회 의견서

박 성 현 위원

◆ 한글날 특집 다큐멘터리 <겨레말모이>(1,2부 10/7, 14)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된 2부작 다큐멘터리 <겨레말모이>는 분명한 주제의식과 다양한 구성이 돋보인 작품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남과 북, 중국과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언어의 이질화 실태와 언어·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겨레말 큰 사전’을 주목하고 있다.

제1부 ‘말의 눈물’에서는 이질적인 언어로 인해 탈북민과 중국동포들이 일상생활과 구직활동에서 겪는 차별을 조명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통일 후 상황’을 설정해 만든 연극을 통해 남과 북 사이의 문화적 갈등과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것은 인상적이다.

제2부 ‘다시 말이 모이다’에서는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온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들을 취재하고, 통일된 독일에서는 언어 차이와 공존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피고 있다. 또한 남북한과 해외동포의 말을 동등하게 모아내는 ‘겨레말 큰 사전’의 편찬이 어떻게 주시경 선생이 시작했던 ‘말모이’(사전) 편찬 작업과 이후 간행된 ‘조선말 큰 사전’의 뒤를 이어 제2의 ‘겨레말모이’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의미 있는 주제와 알찬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다큐멘터리는 다음과 같은 몇몇 아쉬운 점들을 남기고 있다.

1) 2부 14:52 근처, 최 타치야나(93세, 강제이주 당시 11세) 씨의 인터뷰 도중 제작진이 이렇게 질문한다. “할머니, 그래도 러시아 사람보다는 저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하시죠?” 인터뷰 질문을 이처럼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인터뷰이의 생각을 미리 예단하고 질문자가 자기 의도대로 유도하는 방식에 다름 아니다. 전문적인 제작진이 이런 아마추어적인 실수를 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질문은 인터뷰이를 당황시키고 대답하기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낸다. 최 타치야나 씨는 결국 질문에 정확히(또는 직설적으로) 답하지 못한 채, ‘고려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서로 생각한다. 보면 반갑다.’라는 말로 에둘러서 답하고 있다. 강제 이주 당시 11세, 현재 93세인 분에게는 러시아어가 고려 말보다 더 편할 수밖에 없고, 한국 사람과 한국어(고려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러시아 사람과 러시아어로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인터뷰이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제작진의 판단을 미리 깔고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2) 2부 14:42 근처, 역시 최 타치야나 씨의 인터뷰 중 “북쪽에서 온 아즈바이..”에서 ‘아즈바이’를 ‘고모부의 고려 말’이라고 자막 괄호 안에 써 놓았는데, 이는 ‘우리 말 샘’이 ‘아즈바이’를 ‘고모부’의 방언(중앙아시아)이라고 설명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즈바이’는 (북한말에서 ‘아저씨’의 뜻뿐만 아니라) 고려 말에서도 더 포괄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려 말을 연구한 한 학술논문은 ‘아즈바이’가 “숙부/이모부/외숙”(각주에서 각각 “아버지의 남동생/어머니 여동생의 남편/어머니 남동생”이라고 보충 설명함)으로 쓰인다고 밝히고 있다(곽충구, 「고려말의 자료와 연구」 『인문논총』 제58집(2007), 252쪽).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29722/1/Inmun_v58_231.pdf

3) 1부 15:12 근처, 탈북청소년 유혁 씨의 인터뷰 중 “저는 한국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한국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라는 대답이 나오고 자막에서도 이를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질문(남한에서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 내용과 이 대답 후 연이어 나오는 그의 발언(‘말이 안 통해서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답의 맥락상 ‘중국’, ‘한국’이 아니라 ‘중국어’, ‘한국어’로 자막을 써주는 게 시청자들에게 더 정확히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1부 04:40~05:15에 나오는 김이리나 씨의 인터뷰 답변에서 04:46 근처 ‘장남이 중국에서 공부 한다’는 내용은 맥락상 불필요하니 생략할 수 있지만, 05:15 근처의 답변은 ‘과한 의역’이 아니라 ‘오역’이다. ‘우리는 한국에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민족이(남한과 고려인) 무척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남한의) 언어가 요구됩니다.’라는 내용이 “저희는 조금 단절되었죠. 뿌리를 잃어버렸어요.”로 번역되어 자막에 나온다. 외국어로 된 인터뷰 번역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 전문성을 보였으면 한다.

5) 이 다크에서 중국의 ‘조선족’은 그 호칭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이미지로 소비되어온 것을 경계해 ‘중국동포’로 칭하고 있는 반면, 구소련의 ‘고려인’은 그 호칭 그대로 쓰고 있다. 사실,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중국과 구소련에서 한반도(조선/고려) 출신의 소수민족을 지칭하는 중립적 용어에 불과한 것인데, ‘동포’의 포괄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중국동포’라는 호칭을 언론이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있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고려인’과의 호칭 균형의 측면에서 볼 때 시청자들에게 의문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시청자들이 ‘고려인’이라는 호칭은 부정적 이미지를 연상시키지 않아 그대로 쓴 것이라 이해할 수도 있다.).

사실, 원래는 가치중립적인 호칭이라서 ‘조선족’을 굳이 ‘중국동포’로 바꾸어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사회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주는 것도 이 다큐가 주목했던 ‘차별’의 맥락과 닿아 있다 하겠다.

6) 마지막으로, 취재 여건이 허락했을 경우, 고려인 관련 부분에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도 포함시켰더라면 하는 작은 아쉬움이 있다.

2019년 10월 MBC 시청자위원 의견서

윤 여 진 위원

◆ <MBC스페셜>

- '청춘생존' [1,2부 9/16, 23]

<MBC스페셜>이 이번에 준비한 '청춘생존' 1,2부는 청춘들의 생존기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제목에서 주는 인상은 요즘 청년들이 어려운 현실을 이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절반은 맞았지만 그 인상이 씩씩하지 않았고, 그들 나름의 활기찬 생존기를 보는 듯하여 안도감과 믿음,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청춘의 모습을 자꾸 요즘의 청년들에게 투영하려하는 '꼰대'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생존하고 공감하는 방식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그들 나름의 삶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유쾌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하며 살고 있는 청춘들을 보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춘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부에 등장한 주인공 중 개그우먼으로의 본업이 안정적이지 못해 생존을 위협하지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고민과 현실을 웹툰을 통해 사람들과 공감하는 청년의 삶을 보여주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탈모 증세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웹툰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었으며 또 다른 삶이 그를 위로하고 있었다. 수입원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앱테크', 본인이 체득한 절약 정보(금융정보 및 생활의 지혜)를 유튜브로 공유하며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모습은 기성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화이기도 하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돈을 모으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요즘 일반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N잡러라고 칭하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생존할 수 없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청춘, 그들의 현실이 안타깝게도 느껴졌지만 이미 금수저, 은수저가 아닌 청춘들에게 일상의 삶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진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해외직구를 연결하는 일, 부동산 경매 물품을 조사하고 발품을 팔아가며 수요자에게 연결하는 일, 자신의 일상과 정보를 공유하는 유튜브로서의 일 등 직장에 매어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시간을 쪼개서 살고 있는 청춘들의 모습이 짝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청춘들은 더 많은 공감능력을 키우고 있었고,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가장 어려운 존재인 '주택'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해외여행으로 도전적인 삶을 사는 부부에게 여행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지금의 결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시작은 신혼부부가 30년 동안 먹지 않고 모아도 살 수 없다는 '주택마련'이 시작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은 캠핑카에 살면서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살고 있다. 한여름과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고 불안정하지만 청년은 고시원보다 훨씬 자유롭고 자연친화적이라고 말한다. 프로그램은 지금의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주택문제, 불안정한 미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우울하게만 보이지 않았다. 디지털로 연결되어 자신들의 일을 만드는 모습, 주택마련만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느끼기에 지금의 청년들이 대견하고 또 한편으로 미안한 마음이 함께 공존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다.

<MBC스페셜>이 역사와 정치, 경제적 문제를 많이 보여주었지만, 이번 2부작은 지금의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한 작품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키워나가고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하게 되었다.